

## (5) 선지 및 재배형태

### (가) 적지 선정

- ① 생태 환경과 지형지세가 적합하고 수해, 한발피해, 태풍피해와 동해가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 ② 토양 구조와 통풍성능이 좋은 사양토로써 토양이 비옥하고 유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며, 미량 영양 원소를 충분히 함유해야 한다.
- ③ 농작업의 현대화가 원활 수 있도록 기계화, 집약화 작업과 관리에 편리해야 한다.
- ④ 교통운수, 물과 전기공 급이 편리해야 한다.
- ⑤ 인공적으로 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유리하여야 한다.

적지 선정 시 유의 사항 : ㉠ 부식이 풍부하고, 토양 입단, 보수와 투수, 통기가 좋은 토양을 선택하고, 점질토양과 약취가 나는 토양은 회피 ㉡ 지하수위가 높아 배수가 불량하고, 물이 차거나 혹은 건조하여 땅이 굳어지기 쉬운 곳은 금함 ㉢ 서북풍의 찬바람을 직접 받는 곳바람을 등진 양지 바른 곳을 피한다. ㉣ 지세가 낮은 중점질 토양은 반드시 토양 개량 후 재배 ㉤ 염류토양은 금한다.

### (나) 재배형태

#### ① 임지재삼(林地栽蔘; 산지 개간 재배)

벌목한지 5년 이내, 수목 밀도 10~20%, 조림지에 인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부식토재삼(腐植土栽蔘)이라 고도 한다. 중국 전통적인 인삼재배 방식으로 산림지역은 인삼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이었다. 인삼의 산지재배는 삼림자원의 훼손이 커 1998년부터 인삼재배를 위한 삼림 벌채를 금지하여 25° 이상 경사지는 인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삼을 재배 중인 삼림지는 인삼재배 후 다시 삼림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경작지 환림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2015년 산지 개발이 금지되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② 육림재삼(育林栽蔘)

나무 사이의 땅을 이용하여 인삼을 재배하는 것을 육림재삼 혹은 임하재삼(林下栽蔘)이라 한다. 육림재삼의 이점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인삼을 심기 때문에 토양유실 감소하고 해가림을 하지 않아 재료를 절약할 수 있고, 노동력을 덜며 生産성분을 낮추고 또한 환경이 적합하여 인삼생육에 유리하다. 임하재삼의 요점은 육개도(郁開度) 0.7~0.8의 남향 또는 동향의 활엽림지를 선택하여 경사의 완급, 토층의 두께, 임목분포 등 특징에 따라 다른 규격의 두둑을 만들고 지면이 낙엽에 덮이게 하며 나무뿌리가 침입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여름에는 병을 예방하고 국부적으로 햇별을 조절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삼생장에 적합한 비교적 큰 면적의 산림을 선택하여 땅을 고르지 않고 구멍을 파고 심거나 혹은 인삼 씨를 뿌린다.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자연생장을 하게하고 입산을 방지하고 20~30年 후에 수확하는데 이것이 곧 야산삼이다.

#### ③ 농전재삼(農田栽蔘)

농작물을 심는 경작지를 이용하여 인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전재삼은 인삼과 산림이 모순을 해결하고 생태균형을 보존하여 인삼재배 지역을 확대하고 인삼생산을 발전시키는 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소득 증대에 중요한 경제적 의의가 있다. 최근 재배가 크게 늘